

뽕밭의 土地 및 勞動生産性的 向上方向

柳 根 變

慶北大學校 農科大學

蠶業의 最大 弱點은 短期間에 勞力이 많이 所要되는 農事라는 점이다. 거기에다 植物인 뽕농사와 昆蟲인 누에농사를 겸해야 되니, 다른 單作農事에 比하여 복잡하기 그지 없다. 요즘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現實狀況下에서는 蠶業은 더 더욱 매력이 없는 농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部 地域에서는 누에농사가 다른 농사에 比하여 安定的으로 높은 所得을 올릴 수 있는 唯一한 농사로 알고 손이 덜 가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부단히 養蠶技術을 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뽕밭을 보면 그 農家의 養蠶技術을 금방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蠶業 後進國에서는 뽕가꾸기보다는 누에사육에 더 관심이 많으나 養蠶 先進國일수록 누에와 더불어 뽕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누에농사는 좋은 뽕을 많이 얻는 뽕농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뽕농사도 다른 농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方法이 있을 수 없다. 뽕밭 單位面積當의 勞力費를 절감하면서 生産性を 最高로 올릴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뽕밭 土壤의 비옥화 작업이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에는 뽕나무의 生理에 맞는 收穫整枝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地球上的 蠶業國家 中에서 최북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低溫被害를 輕減시킬 수 있는 재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理論과 實際經驗을 잘 調和시킨 栽培技術이라야 널리 普及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뽕밭 單位面積당 누에고치 多收穫農家의 栽培慣行을 참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양잠독농가의 일반적인 재배법은 대체로 土壤의 化學性を 고려하지 않고 金肥의 過度한 施用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뽕밭은 부식함량이

낮은 酸性土壤이 大部分인데 양잠독농가에서는 石炭의 使用량이 적고 有機物 施用量도 그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토양의 비옥화 못지 않게 뽕밭 生産費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뽕밭관리 노력비의 절감문제도 절실한 과제이다. 앞으로 人力不足現象이 더욱 심화되어 小規模 양잠농가는 자연도태되고 大規模 양잠농가만 살아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뽕밭관리의 機械化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약살포, 제조작업, 시비작업 및 밭갈이 작업 등은 어느 정도 機械化가 이루어 졌으나 뽕의 수확과 뽕밭을 만들때 苗木을 심고 묻는 작업은 전혀 기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잠업시험장에서 개발한 휴대용 뽕수확기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뽕전용 수확기는 뽕의 수확노력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어서 앞으로 보완연구가 더 진척되면 뽕의 수확을 완벽하게 기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뽕밭규모가 큰 경우에는 土壤生産性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勞動生産性を 提高시키기 위해서 뽕밭의 기계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뽕밭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土壤生産性を 低下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勞動生産性を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言及한 뽕밭의 土地 및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기 위해서 第1副題 뽕밭管理省力化 現況과 展望, 第2副題 뽕밭 物質生産構造와 生産性 極大化, 第3副題 뽕밭 物質性 沮害環境要因과 對策, 第4副題 뽕밭 災害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등의 4개 副題를 가지고 그룹 研究를 수행하였다.

이들 副題에서 提示된 研究課題 및 대책이 잠업관련 기관은 물론 一般 養蠶農家에 더욱 改善되고 普及되어 뽕밭의 生産性を 提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